

'3퇴'와 평안

제 274기 2016년 11월 1일

2016년 10월 27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2억 5,433만 명

미국 샌프란시스코, 2억 5천만 중화 자녀의 중공 탈퇴 성원



[명혜망] 2016년 10월 22일, 파룬궁 수련생 4천 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상업중심지역과 차이나타운에서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 저지를 호소하며 성대한 행진을 펼쳤다.

행진을 앞두고 파룬궁 수련생들은 샌프란시스코 시청 부근에 있는 유엔 광장에서 단체 연공을 펼쳤다. 오전 11시 30분, 장대한 규모의 행렬이 경찰의 호위와 인도를 받으며 유엔 광장을 출발했고, 시 중심의 상업지역과 차이나타운의 주요 도로를 거친 후 종점인 포츠마우스 공원에 도착했다.

행진 대오는 천국악단의 연주와 함께 ‘파룬따파 하오’, ‘파룬궁박해중지’, ‘2억 5천만 중화 자녀의 중공 탈퇴 성원’ 등 각 주제 부분의 선명한 색채로 관중들의 시각과 심령에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정법위 서기가 시원하게 실명으로 ‘3퇴’ 하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중공(중공은 중국과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해외 퇴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정법위 서기가 시원하게 실명으로 ‘3퇴’ 하다

[대륙 투고] 2016년 6월, 나는 2014년부터 알고 있던 서기를 다시 만나게 되어 그에게 아주 담담하게 ‘3퇴’하여 평안을 보존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말했다. “형님, 제가 좋은 걸 하나 알려 드릴게요. ‘3퇴’하여 평안을 보존한다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제가 형님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인데, 중공이 나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하늘이 중공을 멸하게 됐습니다. 형님이 중공의 당, 단, 대에 가입할 때 주먹을 들고 맹세를 하면서 일생을 그를 위해 분투하고 목숨을 그에게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만약 탈퇴 성명을 안 하면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형님도 한 무리로 연루돼 그의 순장품이 될 겁니다. 탈퇴를 해야만 아름다운 미래가 있고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권고를 시원스럽게 받아들여 실명으로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했고, 파룬궁 진상 자료를 봤다고 말했다. 나는 또 그에게 장쩌민을 고발하는 내용의 밍후이 잡지 한 권을 주었다. 그가 말했다. “앞으로 또 밍후이 잡지가 나오면 모두 나한테 줘. 우리 자주 교류하자.”

며칠 후 나는 또 ‘9평 공산당’ 한 권을 주었고, 그때서야 그가 정법위 서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집에 돌아가서 가족 중 어른, 아이, 동료, 친구들한테도 모두 ‘3퇴’하여 평안을 보존한다는 진상을 말해 준다면 공덕이 무량한 일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는 나의 말을 한 번 반복했다. “공덕이 무량한 아주 좋은 일이야! 좋아!”

그 서기는 ‘3퇴’한 후 과거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그가 말했다. “리훙쯔 대사님은 정말 대단해. 궁주링 사람, 정말 대단해.” 그때 그의 동료가 오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진(眞), 선(善), 인(忍)을 선전하고 있어!” 나는 그의 동료에게 ‘3퇴’를 했는지 물었다. 그가 말했다. “탈퇴했어요.” 우리는 함께 크게 웃었다.

고집불통의 퇴당

[산동 투고] 시장에 노점을 펼쳐놓은 한 아저씨 주위를 노인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3퇴’하면 평안을 보존한다는 진상을 알렸다. 노점 상인이 말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모두 ‘3퇴’했으니까 그냥 두세요.” 노점 상인은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간부로 보이는 사람을 가리켰다.

나는 곧 아직도 ‘3퇴’하지 않은 노인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렸다. 그러나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나에게 말했다. “나는 아무 것도 안 듣고 공연을 즐기고 공산당을 믿어요.”

노점 상인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내 생질이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공산당에 두 번 잡혀갔어요. 여름에

두 사람을 수갑으로 연결해서 모기에 물리게 했어요. 노교소에서는 유리 조각으로 손을 찔러 잡을 못 자게 하면서 졸면 바로 깨워어요.(노점 상인은 나무 막대로 시범을 보였다) 생질은 죽었는데, 모모 마을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다. “황 모모가 아닌가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했다. “아저씨 생질은 파룬궁을 배우기 전에 기관지염이 있었고,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어서 닭과 오리를 훔치며 살았어요. 파룬궁을 배운 후로는 신체가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훔치지도 않았죠. 상대를 찾아 결혼을 준비할 때 불법으로 노동교양처분을 당했어요.” 노점 상인은 한숨 섞인 말투로 주위의 노인들에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공산당이 아니고는 못할 일입니다. 공산당은 과거 작은 일본보다 잔인해요! 내 생질은 살해당했어요.”

노래 듣기를 좋아한다던 노인은 더 이상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고 눈을 크게 뜯 채 듣고 있었다. 나는 더 비참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우리 옌타이 파룬궁 수련생 허슈링은 공산당에 생체 장기적출을 당했는데, 남편이 상소를 하려다 공산당에 살해됐어요.”

노래를 좋아하는 노인은 제대로 알게 되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은 당원인가요?” 주변의 노인들이 모두 말했다. “그는 아직도 당원이고 노간부예요. 빨리 탈퇴해요!” 내가 말했다. “제가 가명을 지어 드릴테니 ‘3퇴’하시죠?” 그가 시원스럽게 말했다. “탈퇴할게요! 고마워요!”

생체 장기적출 발뺌은 종말을 맞은 중공의 두려움을 나타낸다

[명혜망] 2016년 10월 16일은 ‘2016년 중국공산당과 세계의 대화 모임’이 끝난 다음 날이다. 중공 신화사는 대화회의 ‘성과’를 선동하는 평론을 발표하지 않고, 주제와 동떨어지게 당일 우한대학이 개최한 이른바 ‘국제 X교 연구 일선문제 학술연구토론회’에 특별한 관심을 쏟으면서 이른바 인체 장기의 생체적출이라는 ‘요언’을 반박하는 특별 평론에 지면을 할애했다. 신화사는 왜 이렇게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폭행에 대한 전 세계의 비난에 거대한 압력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 ◆ 2006년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중공의 폭행이 폭로된 후 이스라엘은 장기 중개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환자가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 ◆ 2012년 12월 11일, 대만 입법원은 파룬궁 수련생과 사형수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해 이식용으로 매매하는 중공의 행위에 대해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천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 2013년 3월, 호주 상원은 호주 정부에 유엔과 유럽위원회가 발의한 강제 장기적출 반대 결의를 지지하라고 호소했다.

◆ 2013년 6월 27일, 미국 하원의 양당 국회의원은 281호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

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중공에 요구했다.

- ◆ 2013년 7월 10일, 아일랜드 의회 외교 사무 및 무역 연합위원회는 생체 장기적출을 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 2013년 12월 12일, 유럽의회는 양심수와 종교 신앙인, 그리고 소수민족 단체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중공에 요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파룬궁 수련생이 포함된 모든 양심수의 즉각 석방을 중공 정권에 요구했다.
- ◆ 2014년 3월 5일, 이탈리아 의회 인권 위원회는 이탈리아 정부에 파룬궁 수련생이 포함된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중공에 촉구할 것과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 ◆ 2014년 3월 16일, 캐나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공의 인체장기 강제적출 범죄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 ◆ 2016년 6월 13일, 미국 하원은 파룬궁 수련생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중공에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2016년 7월 27일, 유럽의회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저지를 위한 48호 서면성명을 발의해 의원 413명의 지지서명을 받았다. 규정에 의하면 이 서면성명은 곧 유럽의회

가 통과시킨 결의안이 된다.

전 세계 각국이 인체장기 생체적출 중지를 중공에 요구하며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폭행에 가담한 중공 관원들은 모두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다. ‘인체장기 생체적출’을 발뺌하는 신화사의 횡설수설은 그들을 진정시키고 극도의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생체 장기적출이 처음 폭로됐을 때 무시하며 일련의 ‘부인’하는 문장을 발표한 중공은 이후 학술회의를 통해 ‘표백’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일부러 회의를 열어 ‘반박’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중공이 갈수록 ‘생체 장기적출’ 고발을 당해낼 수 없음을 설명한다.

사실 중국공산당은 바로 살인을 통해 일어섰고, 중공의 존재 역사는 바로 피비린내 나는 살인의 역사다. 나아가 피에 대한 짚주림은 중공 사당의 본성이다. ‘9평 공산당’은 “1949년 이후 절반 이상의 중국 인구가 중공의 박해를 받았으며, 6천만에서 8천만 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9평 공산당’은 또 “중공의 모든 행위는 정권을 탈취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살인은 곧 그의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방법이 갈수록 잔인하고 희생자가 갈수록 많아지면 비로소 국민을 더욱 강하게 협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년간의 문화혁명에서 ‘6·4’ 학생 학살, 그리고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에 이르기까지 살인을 즐기는 중공의 잔인한 본성은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인체장기 생체적출’은 중공과 신화사가 몇 마디 말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공의 집권 중 수많은 극도로 잔인한 사건과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잔인한 고문 박해는 사실로 존재한다. 17년 동안 중국에서는 합리적 해석이 불가한 장기이식이 150만 건이 행해졌고, 장기이식 수술은 단 며칠만 기다리면 가능했다. 이 모든 증거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가 사실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증명한다.

중국 내 장기이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 대해 중공이 상세한 통계와 합리적 해석을 내놓지 못한다면 어떠한 입에 밭린 반박과 연구토론도 중공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 신화사가 목이 쉬도록 ‘반박’하는 것은 사실 바로 일종 마지막 날의 통곡이지만, 이런 통곡은 중공의 사악한 본성을 가리지 못하며, 오히려 그런 중공 인권 깡패들의 말일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나타낼 뿐이다.

촌지부 서기가 파룬따파의 좋음을 알다

[쓰촨 투고] 나는 올해 74세로 쓰촨 쌍타이현 농촌 사람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대대 지부 서기를 지냈다.

내 여동생은 파룬궁(파룬따파)을 수련한다. 동생은 2000년 3월 베이징에 파룬궁의 역울함을 호소하러 갔다가 납치돼 불법으로 구류를 당했다. 나는 소식을 듣고 동생을 ‘전화’시키려 천 리나 떨어진 동생네 집으로 차를 타고 찾아갔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동생은 파룬궁이 불법(佛法) 수련이라며 자신이 연공한 후로 진(眞), 선(善), 인(忍)의 표준에 따라 행하면서 신체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마을에서 사이가 좋아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동생은 나에게 파룬궁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동생이 한 많은 말을 듣고 동생의 집을 관찰한 나는

동생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나는 동생을 ‘전화’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마음으로부터 동생의 말에 탄복을 했다. 나는 ‘파룬따파가 좋으며’, 파룬궁이 국가, 사회, 가정 모두에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5년 6월, 동생이 고향에 왔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3퇴’에 동의했다. 아주 빨리 나의 고질적인 다리 통증이 나았고 고혈압도 없어져 신체가 갈수록 건강해졌다. 나는 이것이 내가 성심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를 외워 리 대사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임을 안다. 나는 70여 세 된 사람으로서 아직도 날마다 농사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리 대사님께 감사드린다. (글/쓰촨 수련생 가족)